

공유경제 기대효과 및 성장가능성: 「공유경제<<플랫폼 경제<<디지털경제」

구자현* · 전소영**

I. 공유경제의 개념

1. 공유경제 개요

공유경제(sharing Economy)는 재화나 공간, 재화나 공간, 경험과 재능을 다수의 개인이 협업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나눠 쓰는 온라인 기반 개방형 비즈니스 모델을 의미한다. 즉, 개인 또는 경제주체가 온라인 상에서 조직적인 상호작용(organized interactions)을 통해 지급결제 또는 서비스 제공 형태로 과잉(surplus) 또는 유휴(idle) 자산을 교환함으로써 소유하지 않고 이용(Access over Ownership)이 활성화되는 것을 말한다. <표 1>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과 같이 공유경제는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표 1> 공유경제 이점

구분	주요 특징
자원순환 (Circulation of Resources)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자원소모에 대응
자원활용 극대화 (Full Utilization of Resources)	유휴자원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자원낭비를 최소화
신뢰문화 형성 (Development of a culture of Trust)	이해관계자간 신뢰가 중요해짐에 따라 신뢰문화 형성에 기여
제품과 서비스 다양화 (increase in product and service variation)	수요자 경험이 중요해짐에 따라 플랫폼이 연계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다양화
플랫폼의 역할 확대 (Evolution of the role of organization or companies)	시장수요에 부합하여 중계자에서 컨설팅 등으로 플랫폼의 역할 진화

자료: <https://www.cleverism.com/introduction-to-sharing-economy>.

*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한국개발연구원 전문연구원

자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으며) 수요자 경험이 중요해짐에 따라 플랫폼이 연계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다양화되는 이점이 있다.

특히, 공유경제(sharing economy)는 수요와 공급의 매칭을 개선하여 자원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운영효율성(operational efficiency)을 제고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수요자와 제공자 간 매칭을 개선하는 가운데 유휴자산을 자본화하며 신뢰도를 제고한다.

공유경제는 <표 3>에서와 같이 협업경제(Collaborative Economy), 온디맨드 경제

<표 2> 공유경제 특징

구분	주요 특징
디지털 기술 활용 (The use of digital technologies to match buyers and sell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플랫폼 또는 시장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유휴자산(idle capacity)을 파악하여 잠재적 수요자(user)와 자산 제공자(owner)를 실시간 동태적 연결
유휴자산 자본화 (Capitalizing on idle capac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휴자산 소유자는 수익창출 또는 여타 자원의 교환 수단으로 활용 소유보다는 저렴한 비용으로 활용
거래당사자간 신뢰도 제고 (Trust-verifi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어 리뷰 등급, 제3자 확인, 책임보험 등을 통해 거래당사자간 신뢰도 제고

자료: WEF White Paper(2017.12)

<표 3> 공유경제와 유사 개념

구분	주요 특징
공유경제 (Sharing Economy)	경제의 효율성 및 지속가능성을 확보,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개선을 위해 과소 활용 자산(underutilized asset)의 공유
협업경제 (Collaborative Economy)	소비, 생산, 금융, 학습 등에 있어 협업 강조
온디맨드 경제 (On-demand Economy)	제품과 서비스의 즉시 제공(immediate and access-based) 주안점
긱 경제 (Gig Economy)	단일 프로젝트 또는 테스크에 노동력 또는 기술을 제공하고 소득 창출
프리랜스경제 (Freelance Economy)	독립노동자또는 자영업자가 긱보다는 장기로 프로젝트 등 참여
동료 경제 (Peer Economy)	제품 제작, 서비스 제공, 자금모집 등에 있어 P2P 네트워크 활용
클라우드 경제 (Crowd Economy)	클라우드소싱,클라우드펀딩 등 대중 참여
플랫폼 경제 (Platform Economy)	기술활용 플랫폼 활용
디지털 경제 (Digital Economy)	디지털 기술 활용

자료: <https://www.weforum.org/agenda/2017/12/when-is-sharing-not-really-shar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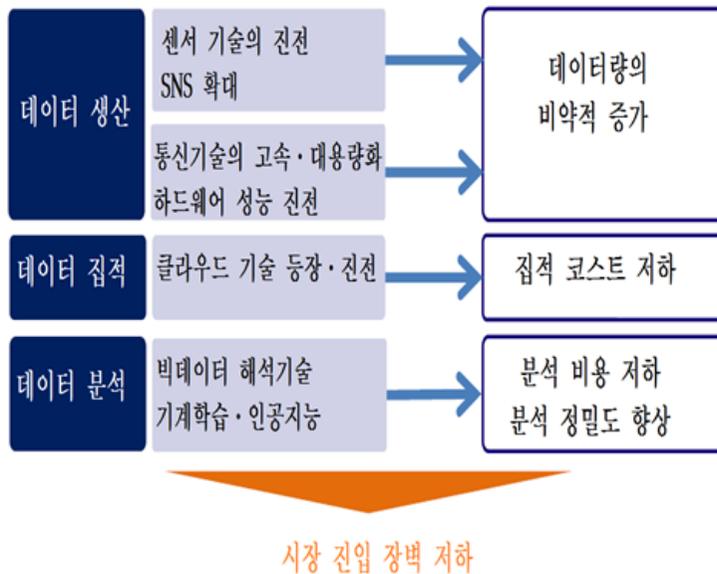
1) 예를 들어 자동차의 95%는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가구 용품의 80%는 월 1 회도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Forbes, 2019. 3. 4).

(On-demand Economy), 깃 경제(Gig Economy), 프리랜스 경제(Freelance Economy), 동료간 경제(Peer Economy), 크라우드 경제(Crowd Economy),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 등 다양한 유사개념이 공존하며, 공통적으로 플랫폼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매칭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2. 공유경제 활성화 요인

최근 공유경제가 크게 부상되고 있는 주요 요인으로는 우선, ICT·모바일 기술의 발달로 스타트업의 진입장벽이 낮아진 것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영국 런던의 택시기사는 수 천개의 지점과 거리 위치, 두 지점 사이 최단 거리 등에 관한 지식을 습득해야 해서 자격 취득에 3년 이상이 소요되었는데 최근에는 GPS, 위성항법 장치가 발달하여 어느 운전자든 쉽고 빠르게 목적지에 도달이 가능하게 되었다. 도시화(urbanization)에 따른 인구의 집적으로 단기간내 시장이 크게 확대될 수 있어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이 유리한 것도 공유경제 활성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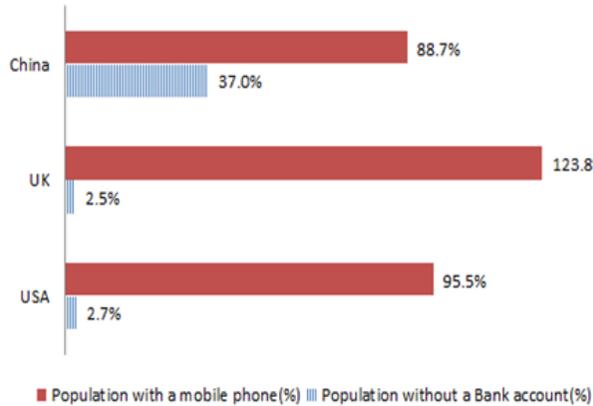
<그림 1> 디지털화의 진전과 공유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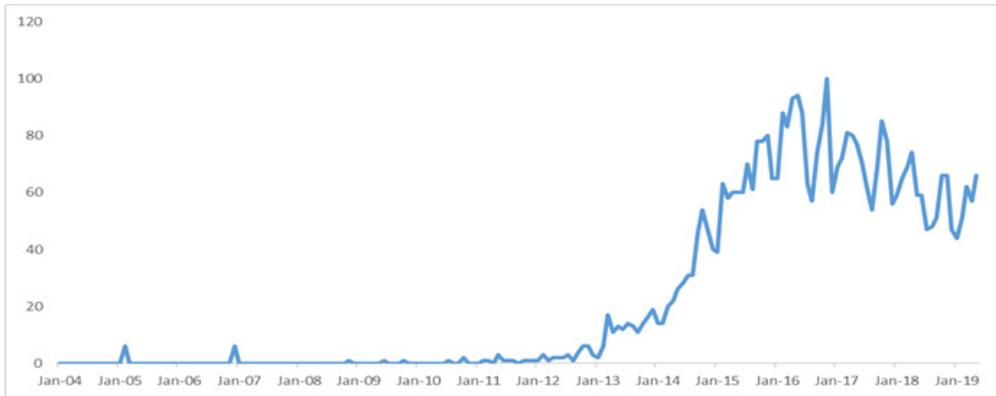
한편, 공유경제는 2010년대 초반 만해도 큰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공유경제 스타트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글로벌한 추세로 자리잡고 있다. 2013년 다보스 포럼에서 응답자의 5% 만이 최신기술 및 P2P 플랫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이해하고 있는 가운데 90%가 공유경제를 모른다고 응답하고, 5% 정도는 물물교환을 의미한다고 이해하

고 있었으나(April Rinne, WEF 공유경제 워킹 그룹 위원) 최근에는 전세계적으로 공유 경제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그림 2> 미국, 영국, 중국 모바일 보급 현황



<그림 3> 구글트렌드 “Sharing Economy” 검색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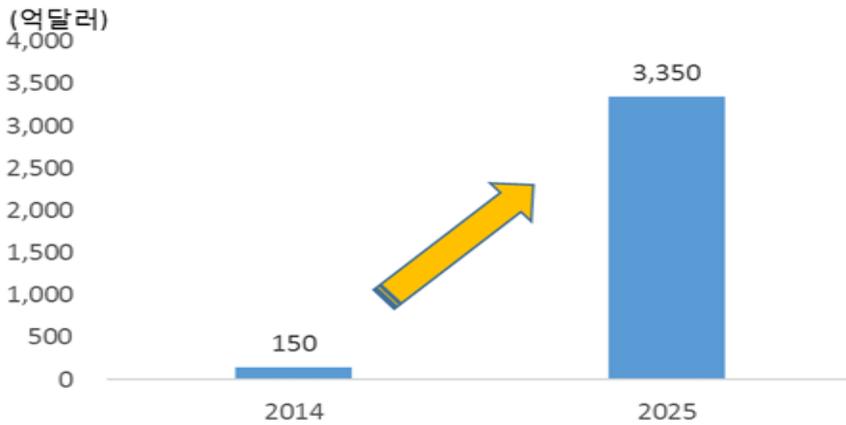


자료: 구글 트렌드(2019.5.6. 접속)

II. 해외 공유경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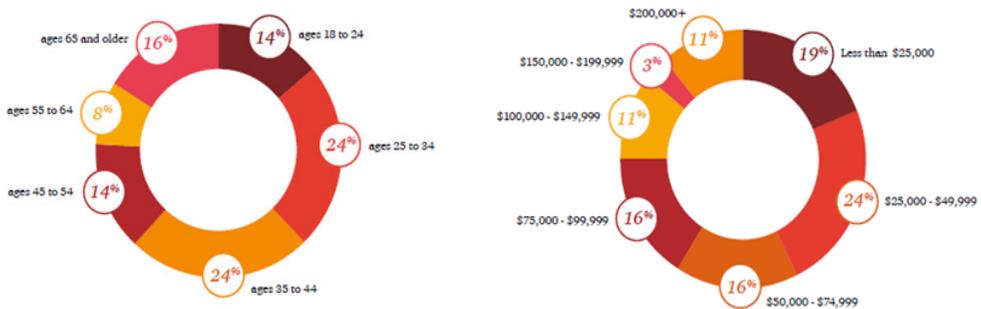
해외 공유경제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공유경제 시장규모는 <그림 4>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과 같이 2014년에 150억달러에서 2025년에는 3,350억달러로 2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인구의 7%가 공유경제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4> 공유경제 시장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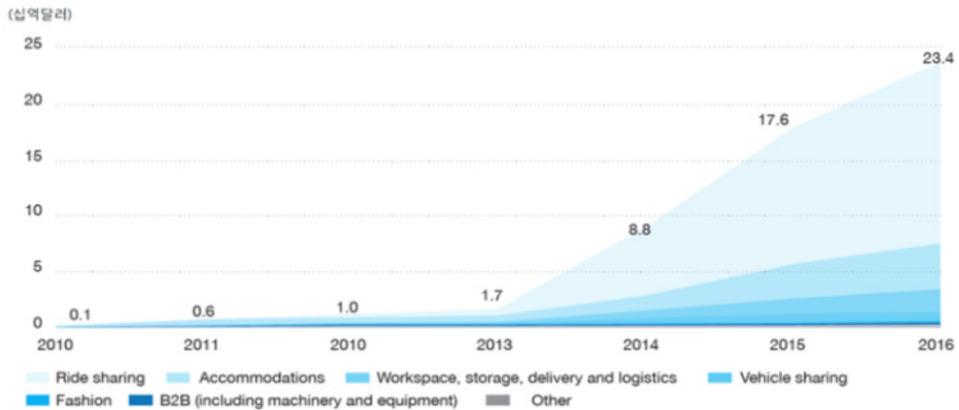


자료: PWC(2015)

<그림 5> 미국 연령대 및 소득별 공유경제 제공



<그림 6> 자산공유 스타트업 누적 투자금액 조달 규모



자료: Wallenstein & Shelat(2017)

공유경제는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주도되고 있는데 2010년 이후 234억달러의 투자자금이 공유경제 스타트업에게 공급되었으며, 유니콘 기업중 상위기업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공유경제 스타트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 유니콘 기업의 상위 10위 현황

번호	기업명	국가	창업	주요 서비스	기업가치(\$B)
1	우버(Uber)	미국	2013	공유자동차	68.0
2	디디추싱(DidiChuxing)	중국	2014	공유자동차	56.0
3	샤오미(Xiaomi)	중국	2011	IT기기	46.0
4	메이툰-디엔핑 (Meituan-Dianping)	중국	2015	생활플랫폼	30.0
5	에어비앤비(Airbnb)	미국	2011	공유숙박	29.3
6	스페이스X(SpaceX)	미국	2012	우주개발	21.5
7	팔런티어(Palantir Technologies)	미국	2011	빅데이터	20.0
8	위워크(WeWork)	미국	2014	공유오피스	20.0
9	루닷컴(Lu.com)	중국	2014	핀테크	18.5
10	핀터레스트(Pinterest)	미국	2012	SNS	12.3

자료: CB Insight(2018.3)

<표 5> 업종별 상위 10위 유니콘 기업가치 현황

순위	업종	기업수	기업가치 합계(\$B)	대표기업
1	공유경제	16	171.6	美 Uber, 中 디디추싱, 싱가포르 GrabTaxi, 몰타 VistaJet등
2	전자상거래	38	141.8	中 메이투안디엔핑, 美 Airbnb, 인도 Flipkart, Snapdeal, 韓 쿠팡등
3	핀테크	27	81.6	인도 One97 Communications, 中 Lu.com, 美 Stripe 등
4	Internet Software	31	70.6	美 Dropbox, 스웨덴 Spotify 등
5	Hardware	6	66.9	中 샤오미, DJI Innovations 등
6	의료·건강	17	39.2	美 Intarcia Therapeutics, Outcome Health, 中 United Imaging Healthcare, 獨 Otto Bock Health Care 등
7	빅데이터	9	33	美 Palantir Technologies, Qualtrics, Uptake 등
8	SNS	10	25.1	美 Pinterest, reddit, 中 Kuaishou등
9	Facilities	2	21	美 WeWork, 中 MofangGongyu등
10	Cyber security	10	12.9	美 Tanium, Duo Security, CloudFlare등

주: 기업가치 합계 9위 업종인 Other Transformation은 SpaceX 1개 기업가치가 215억 달러로 제외.

자료: CB Insight(2018.3)

한편, 대표적인 공유경제 부문인 승차공유의 경우, 미국의 리프트와 우버가 지난 3월과 5월 각각 나스닥과 뉴욕주식거래소에 상장되었다. 2018년말 기준 리프트의 매출액은 22억달러를, 우버는 113억달러를 기록하였다. 리프트의 활성승객은 19만명, 우버는 91백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6> Lyft 재무현황

구분(백만달러)	2016	2017	2018
매출액	343.3	1,059.9	2,156.6
R&D	64.7	136.6	300.8
영업이익	-692.6	-708.3	-977.7

<표 7> Lyft 액티브 승객 및 인당 수익 추이

	16.1/4	2/4	3/4	4/4	17.1/4	2/4	3/4	4/4	18.1/4	2/4	3/4	4/4
활성승객 (백만)	3.5	4.5	5.7	6.6	8.1	9.4	11.4	12.6	14	15.5	17.4	18.6
인당수익 (\$)	15.88	14.11	18.03	18.53	21.42	25.29	26.59	27.34	28.27	32.67	33.65	36.04

주: 활성고객은 분기 1회 이상 이용 승객 기준.

자료: 유진투자증권(2019.4.1)

<표 8> Uber 영업현황

구분	2018.12말 기준
활성승객	91백만명
운전자	3.9백만명
운행횟수	1,493백만
매출액	113억달러(43% ↑)
영업이익	10억달러(-40B\$)

자료: <https://news.alphastreet.com/uber-technologies-nyse-uber-stock-files-ipo-prospectus-to-list-on-ny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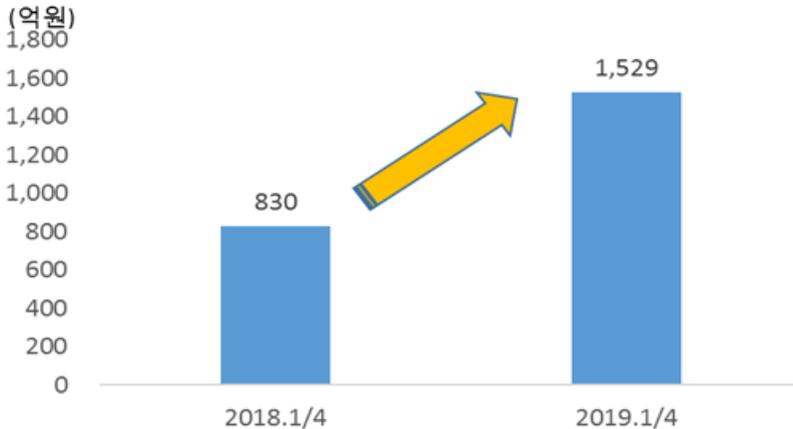
Ⅲ. 국내 공유경제 현황

1. 공유경제 투자 현황

국내에서도 최근 공유경제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공유경제에 대한 투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림 7>의 2019년 1.4분기 유통·서비스 부문에 에 대

한 벤처캐피탈 투자 현황을 보면 전년동기에 비해 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중 상당부분이 공유경제에 대한 투자로 분석되고 있다. 국내 대표적인 승차공유 스타트업인 쏘카는 2014년 이후 총 4회에 걸쳐 약 1,900억원의 모험자본을 조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7> 유통·서비스 벤처캐피탈 투자 현황



자료: 중소벤처기업부(2019.4.30.)

<표 9> Socar 투자 유치 현황

연월	투자단계	금액	주요투자자
2019. 1	시리즈 D	44백만달러	알토스벤처스, KB 인베스트먼트, 스톤브릿지벤처스, 소프트뱅크벤처스
2018. 4	시리즈 C	600억원	IMM PE
2015.11	시리즈 B	56백만달러	Brookside Capital, SK Ventures
2014.10	시리즈 A	18백만달러	Bain Capital
합계		118백만달러+600억원	

자료: Crunchbase(2019.5.6 접속)

2. 국내 부문별 공유경제 현황

우선, 스타트업 및 IT 기업을 중심으로 모빌리티에 대한 진출이 적극적이다. 이는 해외에서와 같이 국내에서도 향후 거점이동을 위한 퍼스트-라스트마일 교통서비스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코자자 등 공유숙박도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해관계자간 갈등 등으로 해외와는 달리 승차공유와 공유숙박이 성장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

<표 10> IT 기업 모빌리티 공유경제 진출 현황

기업	내용
카카오 (카카오 모빌리티)	카풀 서비스 도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성남 등지에서 전기자동차 공유 • ‘카카오 T 바이크’ 시범 서비스
쏘카	인천국제공항에서 ‘카카오 T 주차’ 서비스 시작
	차량 공유 서비스로 창업
	전기자전거 공유 서비스 ‘일레클’ 투자
한글과 컴퓨터	자율주행 스타트업 라이드플렉스 투자
	주차장 공유 서비스 미래엔씨티 인수, 한컴모빌리티 출범
	중국 대형 IT 업체와 합작법인 통한 해외진출 추진

자료: 이데일리(2019.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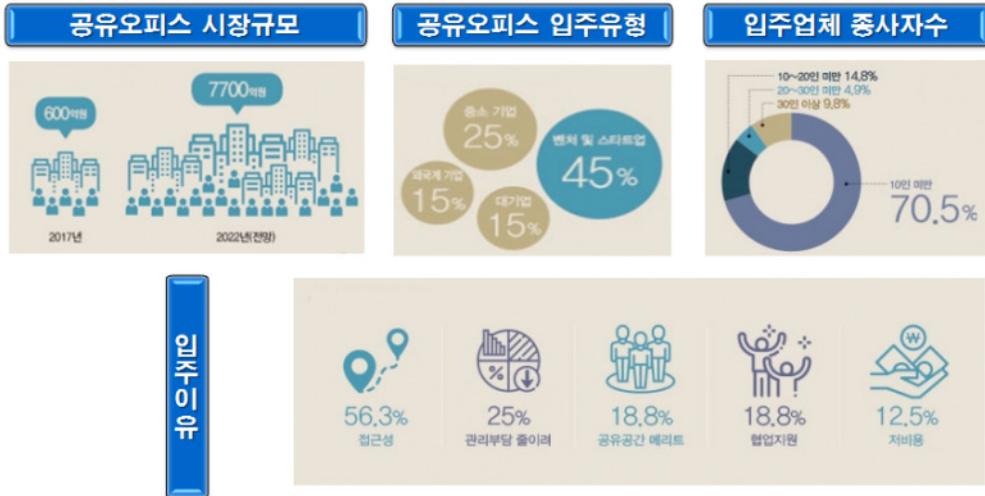
<그림 8> 숙박 공유 사례



자료: <https://www.kozaza.com/ko>

한편, 이해관계자간 갈등 요소가 상대적으로 적고, 스타트업 육성에 유리한 공유오피스와 공유주방은 최근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공유오피스는 57개사가 192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조리비용을 절감하고, 음식점업 가치사슬상 다양한 스타트업 출현이 가능한 공유주방도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림 9> 공유오피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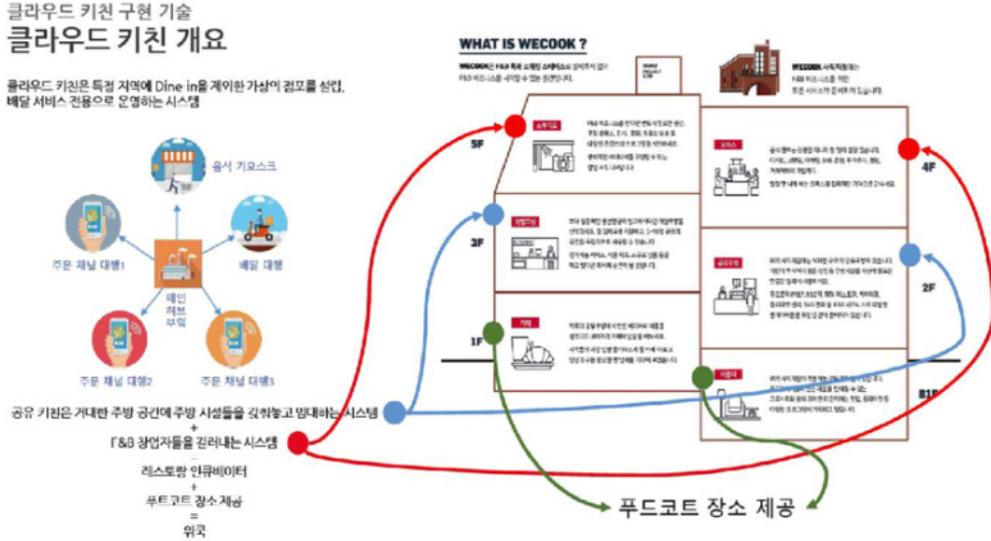
자료: KT경제경영연구소,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시사저널(2019.4.24.) 재인용

<표 11> 주요 공간 공유 비즈니스 현황

	브랜드	사업 특징	운영 현황
공유 주방	위쿱(심플프로젝트컴퍼니)	온라인 식품제조업, 배달전문 병행	공덕, 사직 등 3개점
	심플키친	강남 A급 상권 내 B급 입지 전략	역삼·송파 등 4개점
	클라우드키친(CSS)	우버 창업자 트래비스 칼라닉 설립	강남·삼삼 등 출점 예정
	배민키친(우아한형제들)	유명 맛집과 배달의민족 연계	도곡·역삼 등 5개점
	키친서울(오픈더테이블)	자체 HMR 브랜드 10개 개발	테헤란 1개점
공유 오피스	위워크	글로벌 1위 공유오피스 브랜드	종로타워 등 서울 시내 13개 지점
	패스트파이브	국내 첫 공유오피스 전문 운영사	강남·종각 등 16개 지점
	리저스·스페이스즈 (IWG그룹)	프리미엄 공유오피스 그룹	리저스 12개 지점, 스페이스즈 종로 그랑 서울 1개 지점
	스파크플러스	스파크랩과 아주그룹 협력지원	선릉·역삼 등 6개 지점
	헤이그라운드(루트임팩트)	소셜벤처 전용 인큐베이팅	성수동 1개 지점
공유 주택	우주	국내 최대 규모 공유주택 플랫폼	직영·위탁 주택 100채 이상 운영
	커먼타운(리베토)	고급주거지, 멤버십 커뮤니티 운영	압구정·여의도·청담동 등 29채
	에이블하우스(코티에이블)	대학교 커뮤니티 연계글로벌 기숙사	서울 주요 대학 16채 운영
공유 상점	얼론투게더	국내 첫 민간 운영 공유상점	이태원 1호점, 15개 브랜드 입점

자료: 머니투데이(2019.3.26.)

<그림 10> 위국 공유주방 사례



자료: CNT TECH(2019)

<그림 11> 공유주방과 스타트업



자료: CNT TECH(2019)

IV. 공유경제산업 발전 과제

1. 공유경제와 미래 산업

국내에서는 공유경제 산업이 이해관계자간 갈등 등으로 성장에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공유경제인 승차공유의 경우 택시업계의 고발 등 기존 업계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대부분의 공유경제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경제 등 미래산업과 관계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특히 승차공유의 경우 해외에서는 자율주행차 및 서비스로의 모빌리티 경쟁력 확보의 기제로서 스타트업 및 주요 완성도 업체의 투자가 매우 활발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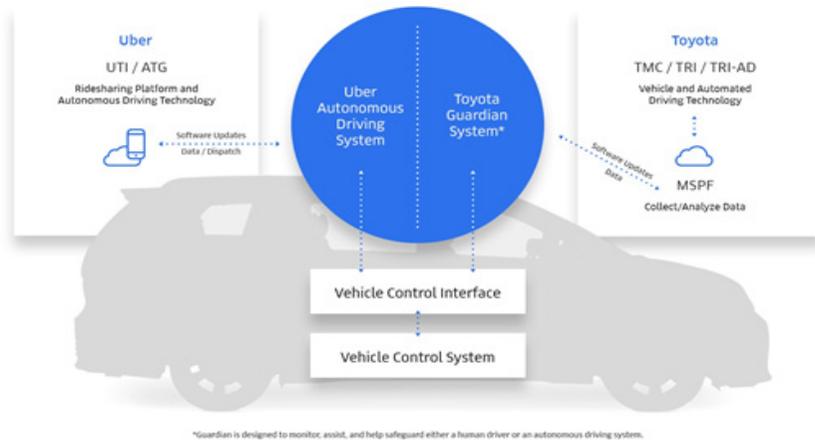
<표 12> 택시업계의 카풀업체 고발 사례

고발 시기	카풀 업체	서비스 내용
2월 11일	쏘카	자동차 공유
2월 11일	타다	실시간 차량 호출
2월 25일	플러스	자동차 공유

자료: 한국경제신문(2019.4.7.)

글로벌 승차공유의 대표적 스타트업인 우버와 토요다는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세계 주요 완성차 업체도 서비스로서의 모빌리티 경쟁력 확보를 위해 승차공유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림 12> 우버 및 토요다 기술협력



자료: 차두원(2019)

<표 13> 주요 완성차 업체 MaaS 추진 현황

완성차	투자기업	출시연도	내용
GM	MAVEN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웨보레 차량 시간당 6달러에 이용 • 스마트폰 앱 기반, 미시건 지역 서비스
폭스바겐	Quicar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프 200대 독일 하노버 70개 지역 배치 • 1만 2,500명 회원, 그린휠스로 통합
BMW	DriveNow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렌터카업체 SiXt와 공동설립 • 유럽 및 북미지역 약 4만 대 운영
DAIMLER	CAR2GO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포투 차량 1만 3천여 대 운영 • 유럽 및 북미 29개 도시 100만명 회원
PSA GROUPE	EMOV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 및 스페인 지역 서비스 • 카셰어링 앱 통합, 멀티모달 교통 연결

자료: 포스코경영연구원(2017)

국내의 경우 대표적 승차공유 스타트업인 쏘카는 자율주행에 대한 투자를 적극하고 있으며 주용 완성차 업체인 현대는 해외 승차공유 및 자율주행 관련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표 14> 쏘카 모빌리티 투자 현황

시기	기업	형태	특징
2018년 7월	VCNC	인수	쏘카 인수 후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 출시
2018년 8월	라이드플렉스	투자	자율주행 관련 서비스 준비 중
2019년 3월	나인투원	투자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 ‘일레클’ 이달 개시
2019년 4월	플라리언트	인수	자율주행차에 접목할 수 있는 가상현실(VR) 서비스 연구 중

자료: 한국경제신문(2019.4.17.)

2. 공유산업의 발전 과제

국내에서도 해외에서와 같이 공유경제가 자원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는 편리성을 제공하는 가운데 미래산업을 위한 혁신을 주도하는 기제가 될 수 있도록 발전해야 한다. 우선 공유경제 스타트업의 혁신 촉진 및 사업화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규제샌드 박스의 적극 활용 등 유연한 규제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신사업에 대한 제도 마련 등을 통해 공유경제 스타트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시켜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덴마크의 경우 숙박공유자의 단기 임대수입을 세무 당국에 보고하기로 제도를 정비하였다. 거주자는 2.8만크로네 약 5백만원 까지, 여름철 숙박 공유자는 4만크로네 약 7백만원까지 세제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일본의 경우 2017.6 월 주택숙박사업법(신민박법, 2018.6 월 시행) 제정을 통해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을 제도화하였다.(이

<표 15> 현대차그룹 모빌리티 투자 현황

시기	국가	업체	분야
2017년 12월	미국	사운드하운드	음성인식
	이스라엘	옵시스	자율주행
2018년 1월	싱가포르	그랩	차량공유
	미국	오로라	자율주행
2018년 3월	미국	아이오닉머티리얼	배터리(IONIC-51725)
2018년 5월	미국	메타웨이브	자율주행(Westgate-Hospitality Suites)
2018년 6월	독일	아우디	수소전기차
	핀란드	바르질라社	재활용 ESS 배터리
2018년 7월	이스라엘	오토톡스	커넥티드카(차량 통신 반도체)
	중국	바이두	커넥티드카
	호주	카넥스트도어	차량공유
	한국	메쉬 코리아	물류서비스(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플랫폼)
	중국	입모터	배터리 공유
2018년 8월	인도	레브	카셰어링
2018년 9월	미국	미고	모빌리티 플랫폼(모빌리티 서비스)
	스위스	웨이레이	증강현실(WayRay. Inc-3110)
2018년 10월	미국	퍼셉티브 오토마타	인공지능(Westgate Hospitality Suites)
	프랑스	에어리퀴드, 엔지	수소전기차
2018년 11월	이스라엘	알레그로.ai	인공지능
	싱가포르	그랩(추가투자)	차량공유
	미국	툽 플라이트	무인항공 드론

자료: 이데일리(2018.12.8.)

코노미 조선, 3.25). 한편 안전 및 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 공유경제 산업도 혁신에 책무성을 가져야 한다. 영국의 적기조례법(1865년)은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대표적 규제 중 하나였지만, 당시 스팀보일러 폭발사고, 증기기관의 공해와 도로 파손 등 기술적 한계도 이러한 규제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것을 반면교사 삼을 필요가 있다. 또한 혁신에 뒤쳐진 계층에 대한 배려 등 공유경제의 혁신은 포용적이어야 한다. 공유경제 산업의 성장으로 타격을 입는 계층이 자영업, 소상공인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인 만큼 혁신의 과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